

또 다른 식민성:

버마 종족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카렌족의 식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이 상 국**

I. 호미 바바를 넘어서: 저항하지 않는 피지배자의 문제

카렌족은 미국 선교사를 어머니로 부르고, 영국 정부를 아버지라 부른다(Morrison 1947: 30).

위의 말은 카렌족이 얼마나 미국인 선교사 및 영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이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카렌족은 미국인 선교사와 영국 정부가 낳은 자식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인 선교사와 영국 정부가 없었으면 카렌족은 세상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식민통치는 현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알려져 있다. 식민 세력은 현지인의 피를 뽑아먹고 민족의 고유성을 단절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8).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조교수

1) “카렌”은 영어식 표기이며 “까잉(Kayin)”이 현재 미얀마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임을 밝힌다. 그러나 카렌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고 카렌족 스스로도 외부인들에게 “카렌”이라고 소개한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 용어를 채택했다. 또한 이 글은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용어와 지명 표기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표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버마(미얀마), 이라와디(에야워디), 아라칸(여카잉), 테나세림(떠닝다이) 등으로 표기했다.

킨 폭압자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현지인의 저항은 민족의 식을 지키려는 지극히 정당한 발로로 추앙받는다. 기존의 식민담론은 이렇게 압제자인 식민 세력과 이에 저항하는 현지인의 항상적인 대결 구도를 상정한다. 사이드(2007)의 오리엔탈리즘 논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확인된다. 서구와 동양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다. 권력을 갖고 있으며 동양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자로서의 서구 혹은 식민통치자 그리고 그러한 식민통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자로서의 동양 혹은 피지배자가 기본 구도인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 하에서 지배자와 피지배 간에는 건널 수 없는 골이 형성되어 있다. 착취를 일삼는 통치자와 그러한 착취에 희생을 당하는 피통치자 간에 조화로운 관계는 애초부터 상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항”은 식민 권력에 대항하는 행동 양식으로 높게 주목을 받고 있다. 대대적 저항이든, 일상생활에서 작은 저항이든, 이것은 피지배인이 식민 세력에 맞서는 주요한 행동 양식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있다. 탈식민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호미 바바(Homi Bhabha 2002)는 사이드를 비판하며 그의 논의가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배자를 이항대립 시키고 전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후자를 재현하는 식민담론을 생성한다고 한다. 즉 사이드는 양자 사이에 섞이고 스미는 과정을 거치며 만들어지는 식민 담론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한다(로버트 영 2008: 359).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면서 바바는 “양가성(ambivalence)”, “흉내내기(mimicry)”, “혼종(hybridity)” 등의 개념을 통해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배자간의 관계 맺기 양상에 새로운 차원을 보여준다. “양가성”과 관련하여 바바는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배자의 관계가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감정들, 가령 끌림과 혐오 등이 교차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홍내내기”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홍내내는 거의 똑같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양가적이라 할 수 있다(피터 차일즈·패트릭 윌리엄스 2004: 268). 바바(2002: 181-184)는 영어교육을 받아 인도의 행정기관에서 일하며 영국과 식민지 민중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도인의 예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이들은 영국인의 홍내를 내며 영국인과 거의 똑같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양가성의 측면을 보여준다. “혼종화”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러한 양가성은 확인된다. “혼종화”는 식민종주국의 문화가 식민지에 받아들여지면서 현지의 맥락에서 섞이고 스미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 때 식민종주국 문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식민담론의 절대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바바는 지적한다. 이것의 예로 바바(2002: 209-243)는 영어 구사와 성경을 든다. 영국 식민지배를 받으며 인도인들이 영어를 구사하게 됐는데, 이것이 정통이 아닌 인도식으로 구사되면서 고귀하게 여겨져왔던 자신들의 언어인 영어의 가치가 현격히 훼손되었다고 한다. 또한 성경에 관하여 인도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이를 읽지 않고 다른 용도로, 즉 휴지나 포장지 등으로, 쓰면서 역시 “영국책”의 가치와 신성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바바는 사이드 등을 비롯해 기존의 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이 이항대립적인 구도로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배자 사이를 다루던 경향을 탈피하고, 일상적이고 민족지적(ethnographic)인 접근을 통하여 이양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섭의 과정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식민지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바바가 기존의 이론가들과 차별을 갖지 못하는 점은 그가 피지배자는 궁극적으로 지배자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자라고 바라본다는 데에 있다. 기존의 이론가들이 이항대립적인 구도로 전면적인 형태의 저항

에 집중했다면 바바는 “홍내내기”와 “혼종화”가 지배자의 언어와 문화의 절대성과 신성성을 해치고 지배자가 생산하는 식민담론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저항적인 도구가 된다고 한다. 혼종성은 담론적 권위에 문제제기를 하며 식민 담론이 완전히 식민지배자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식민 담론의 권위는 피지배자와 대면함으로써 굴절되거나 분열되고 위협을 받는다고 바바는 지적한다(피터 차일스·패트릭 윌리엄스 2004: 280).

바바가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은 지배자의 언어, 문화, 종교를 받아들여 지배자처럼 말하고 믿고 행동하는 피지배자가 지배자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는 현상이다. 바바뿐 아니라 탈/식민 담론의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저항하지 않는 피지배인”이다. 카렌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영국 식민지배를 받으며 식민지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홍내내는 자들이었다. 혼종화가 일어났지만 카렌족들은 이를 저항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가령, 카렌족이 받아들인 성경과 기독교는 현지의 맥락에서 카렌족의 신화와 섞여 원본의 형태와는 달리 “혼종화”가 일어났지만 이것이 원본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항의 도구가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에는 저항이 없는 관계였다. 카렌족의 경우는 그들이 식민 지배세력과 교섭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항대립적인 구도로 살펴보는 기존의 탈/식민 담론의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교섭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혼종화가 저항의 도구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바바가 펼치는 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왜 기존의 이론들로 카렌족의 경우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이 글 앞에서 인용한 문구인 미국 선교사를 어머니라 부르고, 영국 정부를 아버지라 부르는 카렌족의 존재론적인 속성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카렌족에게서 “홍내내기”와 “혼종화”의 맥락과 의도가 기존 이론의 대상이 되었던 피지배자들과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카렌족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부모와 같은 서구 식민지 세력을 동경하고 충성을 다바쳤다.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한 과정 속에서 혼종화가 일어났고 비록 카렌족에게서 영국 식민지배세력과 거의 같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양가성이 나타났지만 이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를 닮아가는 자식의 따라하기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왜 카렌족은 식민세력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버마의 상황에 대해서, 특히 종족간 관계 양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탈/식민주의의 대부분의 이론들은 피지배자 자체의 복잡한 분포와 내적 이질성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즉 피지배자들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며 피지배자들의 지배세력에 대한 태도도 일체화되어 나타난다고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논의에서도 동양은 하나의 단위로서 논의되고 바바의 경우에서도 피지배세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가 그리 두드러지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탈/식민주의 이론에서 단일대오의 피지배세력이 일체화되어 전개하는 “저항”이 주목을 받는 반면, 피지배세력 내의 분절된 행동은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카렌족이 살아있던 버마는 피지배자들이 단일대오로 뭉쳐있는 사회가 결코 아니었다. 식민세력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 사회는 분절적인 사회였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조건하에서 식민세력에 대한 태도도 제 세력 사이에서 당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카렌족의 “일탈적인” 식민성도 당시 정치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야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른” 식민성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저항하지 않는 카렌족의 식민성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는지를 버마의 복잡한 제 종족 세력 간의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성”이라는 용어에 이미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 있어서 카렌족과 식민 종주국 간의 밀접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

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 연구는 카렌족의 경우를 통하여 “식민성”이라는 용어의 내포를 심화시키고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연구는 식민지배를 옹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카렌족의 경우를 통하여 피지배자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식민성이 구성되는 다른 측면을 살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II. 식민통치 이전(전근대 시기)의 종족 관계

종족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시기 구분이 무척 중요하다. 근대주의적 입장의 학자(Gellner 1983; Anderson 1991)들은 종족성과 민족주의가 근대의 산물이라고 한다. 전근대 시기에 사람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은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카렌족을 다루는 학자들(Rajah 2002; Keyes 1977) 역시 이들의 종족성과 민족주의 운동은 근대 시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이들은 영국에 식민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를 근대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이 버마에 진출한 시기를 기준으로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고자 한다. 근대와 근대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는 개념이고 그것을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연구에서는 영국이 버마에 진출하면서 근대적 형태의 관료 행정도 도입되고, 버마의 경제가 자본주의 체계로 긴밀히 편입되어 가고, 무엇보다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식민통치가 시작되는 시기를 근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전근대와 근대를 잇는 과도기적 시기에 대해서도 이후에 언급하고자 한다.

전근대와 근대를 가르는 기준인 영국의 버마 진출과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국과 버마가 조우하기 시작한 때는 1784년이 었다. 당시 버마는 아라칸(Arakan) 지역을 획득했었는데, 영국령 치타공(Chittagong)과 경계를 획정짓기 위해 이 두 세력이 마주한 것이다. 한동안 버마와 영국은 평화롭게 국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해나갔다. 그러나 1811년 이후에 양자간의 관계는 나빠졌다. 영국은 치타공 경계내로 반란군을 잡기 위해 들어오는 버마군인을 고깝게 생각하고 이를 빌미로 버마를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버마는 여전히 영토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전근대적인 통치 개념으로 치타공 영내를 진출하여 반란 세력을 끌어오려 했었다. 버마와 영국 간의 잦은 마찰은 드디어 1824년 대대적인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826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을 제1차 영국-버마 전쟁(Anglo-Burmese War)이라 일컫는데, 결국 영국의 승리로 마감이 되었다. 이 결과 안다보(Yandabo) 협정이 맺어졌고 아라칸과 테나세림(Tenasserim) 지역이 영국으로 넘어갔다. 이후에도 버마와 영국은 전쟁을 벌였다. 1852년에 벌어진 제2차 전쟁 후에 양곤(Yangon)과 하부 버마(Lower Burma)가 승리한 영국으로 양도되었고, 1885-1886년에 벌어진 제3차 전쟁 이후에는 버마의 모든 지역이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Cady 1958: 67-121).

버마에서 식민통치 이전의 시기, 즉 전근대 시기의 종족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그 시기의 세계관, 특히 왕국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마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서 전근대 시기에 명확한 영토 개념이 없었다. 여러 왕국들은, 탐비아(Tambiah 1976)가 언급하듯이, 마치 천체계(galactic polity)처럼 중심 국가와 그 주위를 둘러싼 위성 국가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배열은 가변적이었다. 즉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나타나면, 다른 국가의 위성 국가였던 군소국가들은 충성도를 바꾸며 새로운 중심 국가의 세력권 하에 들어올 수 있었다. 월터스(Wolters 1999: 27-28)는 만달라

(mandala)라는 개념을 통해 불명확한 지리적 경계와 정체들의 유동적인 충성도를 설명한다. 만달라와 같은 동심원적 특징을 갖고 있는 정체들은 그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조공국의 숫자가 변화할 수도 있으며, 기존에 작은 규모의 정체들도 기회를 이용하여 조공국을 거느리는 중심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정체들간 관계가 마치 자기장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싶다. 중심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겼으며 정체들간의 경쟁과 갈등 속에서 자기장 세기와 모양 등의 배열은 달라졌다.

이렇게 유동적인 세계에서 사람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어, 피부색 등 인종적이거나 종족적인 특성이 아니라 권력이 중심이 되는 후원자-수혜자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마련이었다. 즉 권력을 가진 후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추종자들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전근대 버마를 비롯한 동남아에서 종족적 특성이 중심이 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불교가 지배층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구성하는 중심 원리로서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전근대 시기 동남아의 왕권은 불교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었다. 왕은 담마(dhamma, 불법)를 수호하고 이에 따라 정의롭게 통치해야 했다. 전통시대 동남아에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생에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며 지속적으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생에서도 이를 실천해야 했다. 또한 왕은 백성들이 불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이렇게 왕권은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적 원리를 구현하면서 사람들로 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당연히 동남아 일반인들의 삶은 왕실의 불교 후원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불교와 그 문명이 지배원리가 되다 보니, 종족적 특성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

했다.

비록 버마를 비롯해 동남아에서 왕권을 담당하던 세력은 바뀌기도 했지만, 불교적 통치원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버마의 경우를 보면 뿌(Pyu)족과 몬족이 이른 시기에 각각 이라와디(Irrawaddy) 중류 지역과 하부 버마에서 불교 문명 중심의 국가체제를 설립했었다. 버마족들은 11세기에 뿌족과 몬족이 일구었던 불교 문명을 계승하며 버강(Bagan) 왕국을 설립했다. 이렇게 주도 세력은 달랐지만 불교 문명은 단절을 겪지 않고 계승되었다. 버마의 여러 세력들은 각 시기마다 주도 세력의 정체성에 동화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강조해야 할 점은 이 역시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종족적 특징보다 불교적 원리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가령, 버강 왕조 시기에 몬족들은 버마족에 동화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당시 버마족이 불교 문명을 계승하는 주도 세력이었기 때문에, 역시 불교가 생활원리의 중심인 몬족들이 버마족에 쉽게 동화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종족”이 아니라 그들이 계승하는 “불교” 문명이었던 것이다.

한편, 18세기 중반 이후에 상부 버마에 자리를 잡은 “버마족” 왕국과 하부 버마에서 영향권을 행사하던 “몬족” 왕국 간에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리버만(Lieberman 1978)은 이 역시도 종족간 갈등보다 지역간 갈등으로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버마족”은 엄밀하게 구분된 종족 개념이 아니라 상부 버마를 주도하는 세력의 통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몬족”은 종족적 지칭보다 하부 버마 지역 거주민의 지칭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종·종족적 특징과 상관없이 상부 버마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을 “버마족”이라 할 수 있으며 하부 버마에 충성을 바치는 이를 “몬족”이라고 일컬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종족적 범주가 엄밀하지 않고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앞서 언급한 대로 종족적 요소보다 권력이 사람들의 정체성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상부 버마에 몬족 역시 다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버마족 왕조에 충성을 바쳤고, 하부 버마에 버마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몬족 왕조에 충성을 바쳤다는 점이다.

종족적 범주가 그리 확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1740년대와 1750년대에 걸쳐 발생한 하부 버마에 살던 지역민들이 상부 버마에 중심을 두고 있는 따웅우(Toungoo) 왕조와 콘바웅(Konbaung) 왕조에 맞서서 일으킨 반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버마 왕조의 위임을 받아 하부 버마를 치리하던 버마족 총독이 자신의 버마족 왕조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며 여기에 몬족이 주류 세력으로서 동참했다. 또한 하부 버마에서 몬족 반란군을 이끄는 인물은 카렌족이었고 그를 따르는 이들 중에는 버마족들도 많았다. 이를 보면 당시 종족적 요소가 사람들의 충성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카리스마적 능력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부 버마와 하부 버마 사이의 주도권 다툼 속에서 종족적 요소에 강하게 호소하는 움직임도 물론 있었다. 하부 버마 세력이 1752년에 마침내 상부 버마의 왕조가 있던 잉와(Ava)를 점령하고 따웅우 왕조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때 따웅우 왕조의 신하였던 알라웅파야(Alaungpaya)는 그 스스로 콘바웅 왕조를 세우고 “우리 버마족”이 “몬족 침입자”에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상부 버마 사람들에게 강하게 호소하며 상부 버마의 주도권을 회복하려 했다(Lieberman 1978: 473). 그러나 이것은 레토릭에 불과했다. 그의 휘하에는 몬족 등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군인으로 참여했었으며, 그가 마침내 1757년에 하부 버마를 점령하여 몬족 왕조를 무너뜨리고 통일 왕조를 창조한 이후에도 몬족 출신을 신하로 등용하기도 했다. 한편 잉와 주변에는 이전의 따웅우 왕조의 버마족 왕족 후손들이 그의 콘바웅 왕조에 대항하는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가 “종족”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이 시기에 발생한 정

치 상황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측면들이 크게 나타난다. 물론 종족적 요소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언어적·신체적 특징 등 인종적·종족적 요소는 집단간을 구획짓는 요소였다. 버마의 경우 문족은 보통 앞뒤 머리를 깎는 스타일로, 버미족은 머리를 기르고 상투를 틀며 다리에는 문신을 새기는 스타일로 다른 종족과 구분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결코 확고하지 않았었다. 사람들은 문족과 버미족 사이를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문족의 신체적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버미족으로 행사할 수 있었고 역으로 버미족의 문화적 특성을 간직한 채 문족으로 행사할 수도 있었다. 심지어 왕조차도 종족적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았는데, 가령 16세기에 버고(Bago)에 중심을 두었던 버미족의 짜웅우왕조 왕이었던 타빈쉐디(Tabinshwehti)는 문족의 머리 스타일을 따르며 그 휘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문족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는데, 이는 문족 왕이 버고를 통치할 것이라는 예언에 스스로를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한다(Lieberman 1978: 457).

이처럼 종족적 범주는 늘 변화했고, 사람들은 그 범주를 오가며 상황과 시기에 따라 자신의 종족성을 선택할 수 있었다. 어찌보면, 바바가 언급한 양가성, 흉내내기와 혼종성이 그 내포와 외연, 역사적인 맥락은 다르지만, 전근대 시기 종족 관계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버미족인지 아닌지가 헛갈리고, 다른 종족을 흉내내는 것이 비밀비재하고, 여러 종족들의 문화가 섞이고 스미는 혼종화가 발생한 것이다. 바바의 논의에서는 양가성, 흉내내기, 혼종성이 통치 세력과 피통치세력간에 긴장을 유발하는 반면, 전근대 동남아에서 이러한 것들은 양 세력간에 갈등과 저항을 유발하지 않았다.

종족적 유동성은 물론 전근대 시기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근대 국가 시기에 버마의 종족성을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리치(Leach 1964[1954])와 레만(Lehman 1967)은 개인이 종족성을 선택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버마 고원의 까친(Kachin)족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산(Shan)족의 복장을 하고 그 언어를 구사하면 까친족의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면서도 산족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고원과 평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렇게 가변적이었던 것이다. 이는 제임스 스콧(Scott 2009)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고원지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평원에서 국가의 학정을 못이겨 도망치거나, 반란에 패배하여 그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었다. 동남아의 고원지대를 조미아(Zomia)²⁾라고 일컫는데, 사실상 조미아는 태곳적부터 산악부족의 터전이었던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쫓겨나거나 도망친 사람들의 피난처였다는 것이다. 평지에 살던 사람들이 산악 부족이 된 것이다. 즉, “원래의 산악 부족”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정치상황과 이주가 “종족”을 만들어낸 것이다.

요약하자면 전근대 시기 종족은 이렇게 절대적인 범주로서가 아니라 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사이를 횡단하며 유동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전근대 시기 사람들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종족적 요소보다 후원자-추종자 관계, 종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식민통치 프롤로그: 과도기적 시기

앞서 언급한 대로 영국은 1824년에 버마와 첫 번째 전쟁을 벌였

2) 조미아는 원래 중국남서부, 동남아대륙부, 남아시아 산악 지역을 일컫는 용어로 반셴델(Willem van Schendel 2005: 275-307)이 처음 제안했는데, 스콧(2009)이 이를 동남아 논의에 적용함으로써 유행시켰다. 반셴델은 조미아라는 용어를 친(Chin)족과 미조(Mizo)족 등에서 쓰이는 “동떨어졌다”라는 “zo”, 사람을 지칭하는 “mi”로부터 착안하여 제안했다.

다. 이 전쟁이 종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하부 버마의 혼란 상황에 대한 논의를 이어서 할 필요가 있다. 알라웅피야는 이미 언급되었듯이 1757년에 버고를 점령하면서 하부 버마 반란 세력을 진압했다. 그리고 통일 왕조를 다시 열게 된 그는 정복 전쟁을 계속 이어나갔다. 그리하여 서쪽 고원 지역인 마니푸르(Manipur)를 점령하는 전쟁을 1758년에 벌였으며 산 지역도 1758-1759년에 진출하여 지배를 확고히 다졌다. 그리고 드디어 버마와 역사적인 라이벌인 샴(Siam)과 1759년부터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러한 정복 과정에서 당연히 군사력이 필요했고 알라웅피야는 몬족, 카렌족 등 하부 버마에 사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동원했다. 샴과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정복 전쟁 속에 하부 버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핍질해 갔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반란이나 도망이었다. 샴과 벌이는 전쟁에서 용병으로 끌어들이려는 콘바웅 왕조에 대항하여 몬족을 위시한 하부 버마 사람들은 1773년도에 반란을 일으키고 양곤 지역을 노략질했다. 콘바웅 왕조의 야욕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그치지 않자 1814년에 다시 한 번 마타반에서 큰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이들에게 남은 선택은 도망이었고 주요 도망지는 샴이었다(Harvey 1967: 259; Halliday 1913: 5). 하부 버마에 살던 카렌족들 역시 도망자의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샴과 전쟁을 벌이면서 콘바웅 왕조는 카렌족들이 거주하던 산악 지역이 군사 이동로였기 때문에 이들은 콘바웅 왕조의 군사로 징집되거나 정탐꾼과 짐꾼의 역할을 담당해야했다(Keyes 1979: 34-25; Renard 1980: 15).

카렌족들의 이러한 고통은 영국이 하부 버마를 점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다른 말로 영국의 식민통치의 시작은 바로 콘바웅 왕조가 샴과 벌이는 전쟁을 그치게 했으며 그에 따라 카렌족들은 지긋지긋한 고역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카렌족들이 그동안

당한 고역은 제1차 영국-버마 전쟁이 끝난 이후 영국인 총독에게 그들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렌족이 샴의 손아귀에 놓일 때는 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카렌족이 버마족의 손아귀에 놓일 때는 버마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버마족이 샴에 있는 카렌족을 납치하여 잉와에 있는 왕 앞으로 압송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샴족이 버마에 있는 카렌족들 납치하기도 했습니다. ... 버마족이 카렌족들의 쌀과 논을 빼앗고 모든 재산을 강탈했으며, 여자들을 강제로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쳐 개울가나 골짜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압제자들이 그들의 전답을 앗아갔기 때문에, 기근에 시달리게 됐으며 닥치는 대로 정글에서 풀뿌리와 잎사귀로 연명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 때때로 카렌족은 행진하는 군사들을 위해 양식을 짊어져야했습니다. ...병중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갈취당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노예가 되었습니다(Smeaton 1887: 157-160).

이 언급에서 우리는 카렌족들이 얼마나 고통에 처해 있었는지를 감지할 수 있으며 버마족에 대한 증오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일견 “버마족”에 대한 증오는 영국이 들어오기 전에 버마에서 종족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다는 앞의 입장과 상치되는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다. 첫째, 시련이 계속되면서 카렌족을 비롯한 하부 버마 사람들은 종족성을 기준으로 집단을 가르고 자신들에게 시련을 안겨준 “버마족”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나갔을 것이라 보인다. 여기에 알라웅피야가 수복과 정복 전쟁을 벌이며 형성하려고 했던 “우리 버마족”과 “반란자 몬족”이라는 구도가 점점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힘을 얻고 있었을 수도 있다. 반란족들은 이러한 구도를 이용하여 버마족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려는 시도를 했을 것이라 보인다. 이렇게 버마 내부에서 영국이

들어올 때 즈음에 종족에 따라 정체성이 형성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영국이 기름을 부어 이후에 그러한 행태가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내러티브의 효과이다. 고난과 역경은 내러티브를 양산하기 마련인데, 특히 현재의 고난이 과거에 투영된 내러티브를 만들어 낸다. 카렌족 내에서 영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러한 내러티브가 횡행했었다. 그들은 현재 버마족으로 받은 고난을 과거에 투영시켜 예전부터 버마족들은 카렌족을 억압해왔다는 내러티브를 당시 많이 만들어냈다. 이러한 내러티브에서 “선한 카렌족”과 “나쁜 버마족”은 기본적인 구도로 자리 잡았었다. 이것은 카렌족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들리며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이러한 견해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강조하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국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종족성이 계발되고 그에 따라 집단이 구분되었다고 주장한다(Keyes 1977; 박장식 1993: 68; 1995: 264). 그 이전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즉 영국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필자는 두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과도기적 시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칼로 무를 자르듯이 영국 진출 이전과 이후로 시대를 확연히 구분하며 종족성 구성과 종족 관계를 보는 것이다. 필자는 영국이 식민통치를 해나가면서 종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이에 맞추어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종족적인 범주가 고착화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영국이 그러한 고착화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이미 그에 대한 불씨가 버마 내부에서 희미하게나마 자라고 있었고, 영국은 그러한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 그 불씨가 자라나던 과도기적 시기가 바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이었다. 둘째, 기존의 입장은 버마 역사를 낭만화 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영국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종족이 평화롭게 살았었다고 강조한다. 조화롭고 아름답게 살고 있었는데, 영국이 들어오면 서부터 제 세력들이 다툼을 벌이게 되었다며 영국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³⁾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국이 들어오기 이전에 버마는 그야말로 세력간에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였다. 필자는 결코 영국 식민지배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이 들어오기 이전에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의 시기는 반란, 반역, 피난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종족성은 쉽게 정치자원이 될 개연성이 컸고 종족적 원한은 내러티브의 주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즉 종족성이 일상생활과 정체성 형성에 주요 요소로 자라가고 있던 시기인 것이다.

이렇게 과도기적 시기를 고려하면 영국 식민통치 시기에 고착화되었다는 종족에 따른 구분을 맥락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주동적인 존재로서 현지인을 파악할 수 있는 관점을 획득할 수 있다. 즉 종족성의 본격적인 고착이 오로지 영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카렌족의 경우에서 보면 과도기적 시기를 상정하여 맥락적이고 주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종족 정체성의 발전을 훨씬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카렌족이 본격적으로 역사서에 등장한 것이 바로 18세기 중반 이후인데 이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종족성 정체성이 발전할 기미가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걸쳐서 고난과 역경에 처한 카렌족은 내러티브를 양산했으며 특히 메시아의 도래를 희망하는 신화가 카렌족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다. 그 신화의 주 내용을 보자면 “유와(Y'wa 또는 Yuwah)”라는 신이 백인 형제를 보내어 카렌족이 잃어버렸던 약속의 책인 황금책을 가지고 오면 그

3) 이는 미국, 유럽 등의 서구 국가와 맞서던 버마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때 비로소 카렌족은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⁴⁾ 영국이 오기 전까지 이 신화는 카렌족내에 대대적으로 유행하였고 실제로 이들 가운데 유와가 보낸 이라고 자처하는 카리스마적 카렌족 지도자가 나타나 버마 왕조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Smeaton 1887: 189-190). 이를 보면, 혼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종족적 정체성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될 씨가 영국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배양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카렌족들이 주체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내러티브를 만들고 카렌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발해나갔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해석일 것이다. 카렌족이 종족적 정체성 발전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영국이 등장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계발시켰다.

IV. 어머니 미국, 아버지 영국: 영국 식민통치 시기의 카렌족⁵⁾

앞서 언급한 카렌족의 신화는 그들과 백인을 연결하는 매개물이었다. 백인 선교사들은 신화의 내용 속의 “백인 형제”를 자신들로 “황금책”을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카렌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라고 여기기까지 했다(Keyes 1977: 52; Rajah 2002: 525).⁶⁾ 그들은 신화를 활용하여 선교를 확장해나갔으며 카렌족은 이를 신화의 성취라고 생각하며 내재화했다. 백인과의 최초의 만남은 이렇게 신화가 성취되었다는 신비와 경외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4) 카렌족 신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2010) 참조.

5) 이 장의 일부 내용과 인용구들은 필자의 논문(2010: 234-243)에서 이미 언급된 것임을 밝힌다.

6) 당시 백인 선교사들은 버마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활동하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이스라엘 족속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았다. 잃어버린 족속에 대한 설명은 필자의 논문(2010: 229) 참조.

백인에 대한 감수성, 식민세력에 대한 감수성이 처음부터 다르게 형성됐다. 바비는 인도에 도입된 영국책인 “성경”을 혼종화의 예로 들며 인도 현지에서 이 성경의 격이 현격이 떨어져서 신성성을 해치고 결국에 식민세력의 권위에 도전을 준다고 해석했는데, 카렌족들에게 도입된 “성경”은 혼종화가 일어났지만 신성성이 강화되고 백인에 대한 권위를 강화시켜주었다. 다음을 보면 19세기 초기에 카렌족에 전해진 성경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할 수 없는 보물(성경)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람들은 큰 절을 올리며 경배했으며, 어떤 사람은 흐느껴 울었고, 어떤 사람은 그 신성한 책을 꺼안듯이 어루만졌고, 어떤 이들은 그것에 입맞춤을 하고, 어떤 이들을 오랫동안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책 제목을 응시했다. 그들이 그 책 주변에 빼곡히 모여들자 마을 촌장은 그 책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기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는데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며 그것을 바라보았다(Marshall 1997[1922]: 298).

신화 속의 황금책이 실제로 도달했을 때, 카렌족 사람들이 호기심, 경외, 흥분, 감동의 깊은 물결 속에 잠겼다는 것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래 1813년에 양곤에 첫발을 디딘 미국인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은 버마족 선교에 치중했었다.⁷⁾ 그러나 그 선교 성과가 미약하게 나타났고 그 자신은 제1차 영국-버마 전쟁 중에 영국군의 스파이로 의심받아 잉와의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다(코트니 앤더슨 2002: 459-555). 영국의 승리로 끝나자 그는 석방되고 영국이 획득한 영토인 테나세림의 몰메인(Moulmein)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에서 온 조너

7)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에 관한 책은 코트니 앤더슨(2002) 참조.

선 웨이드(Jonathan Wade) 등의 선교사들이 영국의 통치 하에 있는 테나세림 지역, 그 중에서 특히 몰메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도시는 영국의 후원 하에 급성장했고 선교활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당연히 몰메인과 그 근처에 거주하는 카렌족들이 그 선교사들의 주 대상 종족이었다. 산악에 살던 카렌족들은 전설 속의 백인 형제를 보기 위해서 몰메인으로 향하기도 했다(Marshall 1997: 296-297; Smeaton 1887: 192-193). 이미 카렌족들은 그들의 내러티브에서 백인들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만나게 된 백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갔다. 전설 속의 형제이자, 버마족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백인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저항적인” 관계가 싹틀 일이 만무였다. 카렌족과 백인은 신성한 만남이었으며, 백인은 영혼의 구원자이자 버마족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준 자였다. 카렌족의 “식민성”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카렌족 선교는 해가 갈수록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1828년에 최초로 “꼬타뷰(Ko Tha Byu)”라는 이름을 가진 카렌족이 개종을 했는데, 1840년에 이르러 카렌족 기독교인의 숫자는 1,270명으로 증가했다(Mason 1847: 84). 그 숫자는 계속 늘어 1856년에 세례교인의 숫자가 11,878명으로 늘었고, 1919년에 총 신자의 숫자가 약 20만명 가량으로 추산됐고 그 중에 세계교인이 54,353명으로 알려졌다(Marshall 1997: 300).

카렌족의 종족 정체성 발전에 큰 기폭제는 문자의 창제였다. 1832년에 선교사 조너선 웨이드는 버마어 문자를 참고하여 “스고(Sgaw) 카렌어”⁸⁾에 기초한 카렌족 문자를 만들었다(Jones 1961; Rajah 2002: 526에서 재인용). 이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이었다. 근대 민족주의의 운동 전개에서 앤더슨(Anderson 1991)은 활자의 보급

8) 카렌족은 스고(Sgaw), 포(Pwo), 브웨(Bwe)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스고족은 기독교도가 많고 포족은 불교도가 많다.

이 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카렌족의 경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자신들이 문자를 갖게 된 카렌족은 활발하게 그 문자를 사용하며 각종 출판물을 활발하게 발간했다. 그중에서 1841년에 그들은 “모닝스타(The Morning Star)”를 창간했는데, 이는 동남아에서 제일 오래된 현지어 신문이라고 알려져 있다(Smith 1999: 44).

학교의 설립도 카렌족의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 서양인 선교사들의 주요 활동지였던 몰메인에서 1845년에 카렌침례교신학교(Kare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가 설립되어 수많은 카렌족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⁹⁾ 저드슨칼리지도 1875년에 양곤에서 세워졌고 역시 카렌족 학생들의 주요한 교육 기관으로 성장해 나갔다(Marshall 1997: 300). 특히 이러한 교육 기관은 주로 영어로 교육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카렌족들이 이를 통해 많이 배출되었다.

이렇게 미국인 선교사가 어머니의 모성으로 카렌족의 영혼을 보살피고 문화적인 긍지를 심어주고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면, 영국 식민 정부는 아버지의 부성으로 카렌족들을 행정 관료와 식민지의 군대의 전위부대로 등용했다. 영국은 1886년에 이르러 제3차 영국-버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상부 버마를 획득함으로써 전 버마를 식민지화하는 작업을 완수했다. 영국은 식민지 전쟁을 수행하면서 버마족이 주도하는 반란 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특히 정글지역에서 게릴라 전투를 벌이는 무장집단들(dacoit)과 맞서 싸우는 데 큰 어려움을 느꼈다. 카렌족은 영국이 식민지 전쟁 과정에서 그러한 정글을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거나 스스로 무장군대를 조직하여 영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영국이 이렇게 카렌족을 전위부대로 등용하면서 버마내 종족간 갈등은 고착되기에 이르렀다. 영국과 한편인 카렌족과 그에 맞서는 버마족 사이의 구도

9) 이 학교의 웹사이트(<http://kbts.info>) 참조.

가 정형화된 것이다.

영국은 1886년부터 전 버마에 대한 식민통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분리-통치(divide and rule)” 정책을 시행했다. 즉 다수 종족인 버마족과 여타의 소수종족을 분리하여 통치한 것이다. 영국은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 중앙평원지역(Ministerial Burma)에는 직접 식민 정부의 통치 하에 두었으며, 소수종족이 거주하는 변경 지역(Frontier Areas)은 각 종족집단의 고유의 통치제도를 인정하는 “간접지배” 방식을 취했다(박장식 1995: 264).¹⁰⁾ 이렇게 통치 방식이 구분됨에 따라 종족적 고착화가 더욱더 심해졌고 통합의 기회가 적어졌으며 이러한 통치의 구도 하에 버마족과 여타 종족들이 어울리지 않고 제각각 종족성을 계발해나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Taylor 2007: 76).

영국은 식민통치를 해나가며 그동안 헉헉한 공을 세운 카렌족을 주요한 관직에 등용하며 그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당시 식민 정부의 영국인 관료였던 도날드 스미턴(Donald Smeaton 1887: 236-237)의 다음의 언급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영국)가 충성스런 카렌족으로 하여금 나라(버마) 곳곳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하는 것은 큰 이익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영국 정부에 열과 성을 다바치고 있다. 반면에 버마족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카렌족의 충성을 굳게 다져야한다...그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그들이 강하고 번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이 민족 문명과 민족 종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고매하고 훌륭한 정책이다.

실제로 영국은 카렌족을 정치적으로 우대했는데, 식민지의 행정

10) 간접통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ung-Thwin(1985: 252-253), Thant Myint-U(2001: 140-141), Charney(2009: 36-37) 참조.

을 다루는 “입법위원회(Legislative Council)”에서 소수종족 중에서 유일하게 카렌족을 대표하는 의석을 마련했다(Cheesman 2002: 207). 영국은 행정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카렌족을 중용했다. 앞서 카렌족이 식민화 전쟁에서 용병으로 활용되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활동은 “카렌무역경찰대(Karen Military Police)”라는 조직으로 발전되었고 1899년까지 독립 대대로 존재하며 식민정부에 협력했다. 이후에도 카렌족의 군사적인 지원은 계속 이어졌는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시에 일부의 카렌군인은 메소포타미아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다(Marshall 1997: 312-314). 영국 식민정부가 카렌족을 식민군대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1931년도의 식민군대의 종족별 구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931년 버마군대의 종족별 구성

종족	군인수	비율(%)	인구비율(%)
버마족*	472	12.30	75.11
카렌족	1,448	37.74	9.34
친족	868	22.62	2.38
까친족	881	22.96	1.05
기타+	168	4.38	12.12
합계	3,867	100	100

출처: Callahan 2004: 36; Furnivall 1956: 184

* 버마족 범주에 산족과 몬족을 포함

+ 외국인까지 포함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카렌족이 인구비율은 9.34%를 차지하나 식민군대에서는 37.74%를 차지하며 주력 자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비해 버마족의 전체 인구비율이 75.11%에 육박하나 식민군대에서는 12.3%에 불과했다. 영국 정부의 종족에 따른 차별적인 태도가 이렇게 식민 정부의 군대의 종족별 비율을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왜 영국 정부는 버마족을 등용하지 않았을까? 퍼니발(Furnivall

1956: 178-184)에 따르면, 식민 정부는 버마족을 주력자원으로 양성해 놓으면 오히려 식민정부에 반항하는 세력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이들 대신 자기들에게 충성을 다바치는 카렌족을 등용하는 것을 선호했던 것이다.

영국은 식민통치를 하면서 크고 작은 반란에 직면했다. 이중에서 1930-1932년 사이에 발생한 사야산(Saya San) 반란은 식민 정부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동안 반영 감정이 버마족 민족주의자들 사이에 커져왔는데, 전직 승려인 사야산은 마술적인 카리스마에 호소하며 버마 민중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여기에서도 카렌족의 공은 대단히 컸다. 카렌족은 민병대를 조직하여 반란 세력을 공격하며 영국 정부에 적극 협력했다(Cady 1958: 317). 영국 식민통치 하에서 버마족과 카렌족은 서로 반대편에서 맞서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고 그 결과로 상대 종족에 대한 적개심도 커져갔다.

카렌족은 이렇게 영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종족정체성을 발전시켜나갔으며 이에서 더 나아가 카렌민족주의를 주창해나갔다. 앞서 언급했듯이 1832년에 문자의 창제와 인쇄물이 카렌족의 종족의식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더 나아가 카렌족은 1881년에 “카렌민족연합(KNA, Karen National Association)”을 창립했다. 이로써 카렌족은 본격적으로 카렌족의 단합을 도모하는 조직을 갖게 됐으며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직은 기독교 카렌족이 주도했으나, 카렌족의 모든 계 세력을 아우르며 종교적·지역적 차이를 넘어서려 했다. 원래 KNA는 정치적인 성격의 조직보다 카렌족의 문화, 교육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성격의 것이었다. 그러나 버마 민족주의자들이 1906년에 “청년불교연합(Young Men's Buddhist Association)”을 창립하며 본격적으로 반영민족주의 운동을 벌여나가자 이에 맞서서 카렌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했

다. 카렌족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호소는 1920년대에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드디어 1928년에 카렌민족의 아버지라 여겨지는 산시포(San C. Po)가 “독립카렌국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긴 최초의 저서(*Burma and the Karens*)를 발간했다(이상국 2010: 237). 이 책에서 산시포(1928: 81)는 다음과 같은 말했다.

“카렌국가”,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인가! 이 얼마나 카렌인의
마음속에 상상과 웅장한 감정과 미래의 아름다운 비전을 심어 놓
은 말인가!

이 감성적인 표현에서 카렌족이 얼마나 국가를 세우고자 열망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시포(1928: 66)는 영국이 버마를 계속 통치해야한다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다.

버마는 아직 자치(Home Rule)를 할 역량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카렌족의 일치된 견해이다. 버마는 스스로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영국의 지원과 보호 그리고 영국의 지속적인 통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긴다. 아마도 버마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한 방식대로 스스로 통치해나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카렌족은 그러한 실험이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시포의 위의 주장이 그 앞의 주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당시 카렌족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한편으로 카렌국가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영국이 계속 버마에 남기를 바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원했지만, 그 때의 “자주”는 오직 “버마족으로부터” 자주였다. 여전히 영국에 대해서는 아버지로 모시기를 원했다. 여기에서 카렌 민족주의의 불완전성과 한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역으로 영국이라는 존재가 카렌족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를 여실히 파악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버마족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며 공격적인 민족주의운동을 벌였으면서도 영국에 대해서는 의존적인 민족주의를 벌였던 것이다.

이러한 카렌족과 영국 정부의 밀착적 관계는 제2차 대전 시기에도 변하지 않았다. 충성스러운 카렌족은 영국측에 가담하여 일본군과 대항을 했다. 무섭게 진격해들어오는 일본에 맞설 수 없게 되자 영국은 주력부대를 인도로 퇴각시키고 대신 시그림(Seagrim) 소령을 통해 게릴라 투쟁을 벌이도록 했다. 카렌족은 시그림 소령과 더불어 정글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 그들은 정글을 이동할 때 안내역할을 했으며 민병대를 직접 조직하기도 했다. 또한 시그림에게 양식과 거처를 제공하고 충성을 다해 그를 보좌했다(Morrison 1947: 59).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영국은 아웅산을 비롯한 버마의 지도자들과 버마의 독립에 대해 협의해나갔다. 이 때 카렌족의 주장은 훨씬 더 명확해진다. 그들은 카렌족 민족주의자들은 버마족과 같이 국가를 형성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영국이 계속 그들이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애타는 마음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그들은 “굿윌미션(Goodwill Mission)” 그룹을 1946년에 영국 런던에 파견했고 그곳에서 영국의 정치인들을 만나며 카렌 독립국가에 대한 지원을 간곡히 호소했다. 당시 영국내에서 “충성스런 카렌족(loyal Karen)”에 대해서는 널리 인지가 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식민 관료였던 스미턴(Donald Smeaton)이 1887년에 펴낸 *The Loyal Karens of Burma*라는 책은 이미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었으며 카렌족들이나 영국은 카렌족과 영국의 관계를 설명할 때면 언제나 이 책을 언급하곤 했다. “충성스런 카렌”이라는 것은 담론적 지식으로 버마에서나 영국에서나 대중에 퍼진 것이다. 카렌국가를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는 영국내에서도 큰 논란 거리였다. 영국내 언론들도 이 문제들을 주요한 이슈로 다루었다(Morrison 1947: 230). 그

러나 현실 정치는 “충성스런” 카렌족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너무나 복잡다단했다. 일단 카렌족의 거주지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을 카렌족에게 부여할지가 어려웠다. 카렌족이 자기들에게 요구한 이라와디 델타의 경우에는 많은 수의 카렌족들이 이미 버마족에 동화되어 카렌족의 거주지라고 하기에는 무리였다. 이외에도 카렌족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종족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에서 카렌족의 요구만을 들어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굿월미션 그룹의 활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아버지인 영국 정부에 그간 충성을 다했던 카렌족들이 느꼈을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도 카렌족은 전설 속의 형제이자 현실 속의 아버지인 영국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카렌족은 청원서와 진정서를 식민정부에 계속 보냈고 영국 의회에 다음의 내용이 담긴 소책자를 보냈다.

카렌족과 버마족이 같은 국민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체감 있는 버마국민을 바라는 이러한 미망은 이미 선을 훨씬 벗어났고 곤란한 상황만을 자초할 뿐이고 버마를 파괴로 이끌 것입니다... 카렌족과 버마족은 인종적인 기원이 다르고 문명도 다릅니다. 단일 국가에서 숫자적으로 열세인 민족과 우세인 민족이 명예를 같이 맨다는 것은 불만을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파멸로 끝날 것입니다(Saw Po Chit 1947: 1-8, Smith 1999: 87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구 정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당시 *The Times*를 비롯해 영국 언론과 대중은 “충성스런” 카렌족을 버린 것에 대한 애석함을 나타냈다(Gravers 1996: 254). 당시 영국내 분위기는 현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카렌족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지만 심정적으로는 카렌족을 돕고 싶어했던 것이다.

결국 버마는 1948년 1월 4일에 독립을 했고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버마를 떠났다. 이로써 182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식민세력과 카렌족의 관계는 마감이 되었다. 그 긴 시간동안 카렌족과 영국식민세력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었다. 카렌족은 식민세력에게 진실로 충성을 다바쳤고 식민세력은 진정성을 갖고 카렌족들을 우호적으로 대했으며 이들이 식민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도록 배려해주었다. 카렌족은 식민지세력의 언어, 문화를 흉내냈으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혼종화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한 흉내내기였고 혼종화였고 그 이면의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영국식민지 세력도 이를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이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해주었다. 이 둘 사이에는 이항대립적인 구도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서로 교섭적인 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모방과 혼종화가 일어났지만 저항의 의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기존의 식민주의에 관한 논의는 식민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간의 갈등과 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었다. 기본적으로 양 세력은 이항대립구도를 형성했다. 식민주의 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사이드에게서 이러한 구도는 확인된다.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지배자로서의 서양과 피지배로서의 동양을 설정한다. 동양은 언제나 동양으로서 머물러 있어야하고 서양은 서양으로서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대부분의 식민주의 담론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식민세력은 언제나 박탈당하는 자로, 식민지배자는 언제나 수탈하는 자로 인지되어왔다. 이러한 구도의 문제점은 양자간의 교섭을 제대로 볼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었던 카렌족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한계

를 드러낸다. 피지배세력인 카렌족과 식민세력인 영국 간에는 이항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애초부터 영국은 카렌족에게 해방자로 등장했으며 특히 신화 속의 형제가 실체로서 현현된 존재였다. 식민통치 시기에 카렌족과 영국은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는데, 카렌족은 영국이 식민화 작업 과정에서 용병으로서 충성을 다했고, 이후에 식민 정부의 행정 관료와 군인으로 충실히 역할을 수행했다.

이 연구는 카렌족과 영국간의 이러한 교섭적인 관계를 바바의 탈/식민주의 담론에서도 비추어보았다. 바바는 양가성, 흉내내기, 혼종성의 개념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섞이고 스미는 현상을 설명했다. 피차 섞일 수 없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관계에만 집중하던 논의를 탈피하고 또 다른 관계의 측면을 민족지적으로 살폈다는 측면에서 바바의 논의는 그 만큼 탈/식민주의를 이해하는 지평을 넓혔다. 그러나 바바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진영적인 대립 구도 자체는 탈피했지만 여전히 심리적 대립구도 자체를 탈피한 것은 아니었다. 바바는 여전히 피지배자의 “저항”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존의 논의가 “전면적 저항”에 관심을 가졌다면 바바는 “미시적 저항”에 집중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바바에 의하면, 피지배자는 식민지배자의 언어와 문화를 모방하여 마치 식민주의자 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천해 보이는” 피지배자가 고귀한 식민주의자들의 언어와 문화를 흉내내면서 식민 세력의 권위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식민지에 식민모국의 문화에 들어오면서 원래와는 다른 형태로 바뀌는 혼종화가 일어나는데, 이 역시도 그 원본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글은 비록 카렌족과 식민지배자간의 교섭이 발생했지만 이런 식으로 양자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저항이 없는 카렌족의 식민성을 파악하면서 이 연구는 카렌족이

식민세력에 대해 가진 초기의 감수성을 살펴보았다. 카렌족과 식민세력의 만남은 신화가 매개된 신성한 만남이었다. 실질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백인은 이미 신화 속에 해방자였다. 이를 역사적 맥락 하에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의 시기를 언급하며 전쟁, 기근, 반란, 도망으로 점철된 이 시기를 겪으며 종족적 정체성이 자라는 기운이 보였으며 바로 신화를 비롯한 내러티브가 그것을 담는 매개였다는 것을 언급했다.

카렌족과 백인이 만나면서 바바가 언급한대로 흉내내기와 혼종화 과정이 발생했다. 이 때 흉내내기는 일방적으로 피지배자가 지배자를 닮기 위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백인도 카렌족 신화 속의 백인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흉내내기를 시도했다. 또한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의 권위가 훼손된 것이 아니었다. 카렌족은 식민세력의 종교와 언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들에게 충성을 다바쳤으며, 식민정부는 그들을 식민관료와 군인으로 등용하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했다. 아버지인 영국 식민 정부는 아들인 충성스러운 카렌족을 보살피준 것이다. 따라서 영국이 버마를 식민통치하던 시기에, 카렌족이 없는 영국 식민정부, 영국 식민정부가 없는 카렌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양자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비록 식민지 현실의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영국은 카렌족에게 국가를 선물해주지 못하고 자국으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1820년대부터 시작하여 1948년까지 한 세기가 훨씬 넘게 형성된 양자간의 관계가 피상적이었고 거짓된 관계였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카렌족은 식민정부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희생을 다바쳤고 그런 충성스런 카렌족은 식민지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식민모국의 사람들도 감동시켜왔었다. 그렇기에 영국정부가 카렌족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없자 영국 대중들과 언론들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것이다.

이렇게 저항하지 않는 피지배자인 카렌족을 노예근성에 사로잡힌 자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기존의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식민성”을 과도하게 도덕적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 종족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단견이라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인 미국인 선교사와 아버지인 영국 정부가 낳은 자식인 카렌족에게 아버이를 부정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도덕적인 언사일 것이다. 카렌족의 “식민성”은 노예근성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머니를 어머니라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카렌족, 식민성, 호미 바바, 탈식민주의, 버마, 영국

<참고문헌>

- 바바, 호미. 나병철 역. 2002. 『문화의 위치: 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서울: 소명출판.
- 박장식. 1995. “미얀마 카렌족의 분리주의 운동.” 『동남아연구』 4: 255-282.
- _____. 1993. “미얀마(버마)의 종족집단과 종족분쟁.” 『지역연구』 2(4): 57-76.
- 사이드, 에드워드. 박홍규 역. 2007.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 앤더슨, 코트니. 이기섭 역. 2009. 『아도니람 저드슨의 생애』. 서울: 좋은씨앗.
- 영, 로버트. 김용규 역. 2008. 『백색신화: 서양이론과 유럽중심주의

비판』.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이상국. 2010. “백인 구원자와 카렌족: 현실이 된 카렌족 신화.” 『한국문화인류학』 43(1): 217-262.

차일즈, 피터·윌리엄스, 패트릭. 김문환 역. 2004. 『탈식민주의 이론』. 서울: 문예출판사.

Anderson, Benedict R. O. 1991.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Aung-Thwin, Michael. 1985. “The British ‘Pacification’ of Burma: Order without Meaning.”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6(2): 245-261.

Cady, John F. 1958. *A History of Modern Burm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Callahan, Mary P. 2004. *Making Enemies: War and State Building in Burma*.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Charney, Michael W. 2009. *A History of Modern Burm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eesman, Nick. 2002. “Seeing ‘Karen’ in the Union of Myanmar.” *Asian Ethnicity* 3(2): 199-220.

Furnivall, John S. 1956. *Colonial Policy and Practice: A Comparative Study of Burma and Netherlands India*.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Gellner, Ernest. 1983.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Gravers, Mikael. 1996. “The Karen Making of a Nation.” S. Tonneson and H. Antlov eds. *Asian Forms of the Nation*. pp. 237-269. London: Curzon.

Halliday, R. 1913. “Immigration of the Mons into Siam.” *Journal of*

- the Siam Society* 10(3): 1-13.
- Harvey, G. E. 1967. *History of Burma: From the Earliest Times to 10 March 1824, the Beginning of the English Conquest*. London: Cass.
- Keyes, Charles F. 1979. "The Karen in Thai History and the History of the Karen in Thailand." C. F. Keyes ed. *Ethnic Adaptation and Identity: The Karen on the Thai Frontier with Burma*. pp. 25-61. Philadelphia: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Issues.
- _____. 1977. *The Golden Peninsula*. New York: MacMillian Publishing.
- Leach, Edmund R. 1964[1954].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A Study of Kachin Social Structure*. Boston: Beacon Press.
- Lehman, Frederick K. 1967. "Ethnic Categories in Burma and the Theory of Social Systems." P. Kunstadter ed. *Southeast Asian Tribes, Minorities, and Nations*. pp. 93-124.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eberman, Victor B. 1978. "Ethnic Politics in Eighteenth-Century Burma." *Modern Asian Studies* 12(3): 455-482.
- Marshall, Harry I. 1997[1922]. *The Karen People of Burma: A Study in Anthropology and Ethnology*. Bangkok: White Lotus Press.
- Morrison, Ian. 1947. *Grandfather Longlegs: The Life and Gallant Death of Major H. P. Seagrim G.C, D.S.O., M.B.E.* London: Faber and Faber LTD.
- Rajah, Ananda. 2002. "A 'Nation of Intent' in Burma: Karen Ethno-nationalism, Nationalism and Narrations of Nation." *The Pacific Review* 15(4): 517-537.
- Renard, Ronald. 1980. *Kariang: History of Karen-Tai Relations from*

- the Beginnings to 1923*. Ph D Thesis. Department of History, University of Hawaii.
- San C. Po. 1928. *Burma and the Karens*. London: Elliot Stock.
- Saw Po Chit. 1947. *Karen and Karen State*. Rangoon: Thanthanahita.
- Scott, James C. 2009. *The Art of Not Being Governed: An Anarchist History of Upland Southeast Asia*.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Smeaton, Donald M. 1887. *The Loyal Karens of Burma*. London: Kegan Paul, Trench & Co.
- Smith, Martin. 1999. *Burma: Insurgency and the Politics of Ethnicity*. London: Zed Books.
- Tambiah, Stanley J. 1976. *World Conqueror and World Renounc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Robert H. 2007. "British Policy towards Myanmar and the Creation of the 'Burma Problem'." N. Ganesan and Kyaw Yin Hlaing eds. *Myanmar: State, Society and Ethnicity*. pp. 70-9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hant Myint-U. 2001. *The Making of Modern Burm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Schendel, Willem. 2005. "Geographies of Knowing, Geographies of Ignorance: Jumping Scale in Southeast Asia." P. H. Kratoska, R. Raben and H. S. Nordholt eds. *Locating Southeast Asia: Geographies of Knowledge and Politics of Space*. pp. 285-307.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 Wolters, O. W. 1999. *History, Culture, and Region in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2011. 11. 22. 투고; 2012. 01. 21. 심사; 2012. 02. 25. 게재확정)

<Abstract>

Other Colonial Subject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Ethnic Relations in Burma
and Construction of Coloniality among the Karen

LEE Sang Kook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non-resistant coloniality was historically formed, drawing on the case of the Karen in Burma. It criticizes that existing discussion on colonialism is preoccupied with locating colonial powers and subjects in antagonistic positions, only regarding the former as the oppressors, the latter as the resisters. In contrast, Homi Bhabha makes an attempt to overcome this binary approach by introducing ambivalence, mimicry and hybridity to show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e limitations of Homi Bhabha's approach since he is not exceptional in identifying colonial subjects as the resisters in the end. This study pays an attention to a particular context where the mimicry and hybridity of the Karen took shape and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the understanding of the historical formation of coloniality in association with the Karen. For that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how non-resistant colonial subjects were formed, taking a close look at the pattern of ethnic relations in Burma over history. The

또 다른 식민성: 버마 종족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카렌족의 식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35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epen and expand the discourse of post-colonialism by revealing the different path of forming colonial subjects as non-resistant people.

Key Words: the Karen, coloniality, Homi Bhabha, post-colonialism, Burma, the British